

플립러닝을 활용한 청소년 설교 적용 사례: D 교회를 중심으로

문경구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 박사과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플립러닝을 활용한 청소년 설교의 적용사례 연구로서, 청소년설교자들이 청소년 설교의 효과적 방안으로 플립러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남 창원시 D교회 청소년부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 현재까지 1년 넘게 플립러닝을 활용한 청소년 설교방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플립러닝 방식의 청소년 설교는 먼저, 설교자는 주일 설교요약 동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로 시청하게 하였다. 이후 청소년들은 매주 설교시간에 선행학습 동영상에 제시된 논의 문제를 반별로 토의한 후에 심화학습인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액션러닝으로 예배 이후 자신의 결단을 페이스북 D교회 청소년부 페이지에 기록하게 하였다. 연구를 위해 교사 5명은 심층면담을 시행하였고 청소년 10명은 다초점면접을 하였다. 이와 같은 질적연구를 통해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학습자의 플립러닝에 대한 사전 이해와 학습적 동기가 필요하였다. 둘째, 원활한 플립러닝 진행을 위한 교사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였다. 셋째, 학습자는 정한 요일에 온라인으로 동영상 업로드를 요구하였다. 넷째, 학습자는 설교 주제와 연결되는 토의 주제를 요구하였다. 다섯째, 교사와 학생간의 신앙적 유대관계가 강화되었다. 여섯째, 청소년 회중의 설교 참여로 설교의 집중이 좋아졌다. 이에 플립러닝을 기반한 청소년설교의 실행연구와 플립러닝을 활용한 제자훈련을 포함한 청소년 교육에 여러 분야의 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청소년설교사례연구, 플립러닝, 기독교교육, 심층면담, 다초점면접,

1. 들어가며

오늘날 청소년 설교사역자들의 고민은 청소년설교에 대한 청소년 회중¹⁾의 냉담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청소년들은 ‘설교’ 자체를 외면하기 보다는 청소년 이해와 소통이 없는 청소년 설교를 거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이철승, 2010: 189-190). 또한 청소년의 신앙성숙이 관계를 통해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관계 지향적 청소년 설교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함영주(2013: 296-304)는 청소년은 관계를 통해 신앙성숙이 일어남을 밝히고 있다. 부모와 친구, 교회학교교사 중에서 청소년 신앙성장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집단이 교회학교 교사임을 통계방법으로 증명하였다. 이는 신앙성숙의 직접적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학교교사와 청소년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김효숙(2016: 89-95)은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교사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학생간의 갈등을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확산성모형을 제시하였다. 김효숙은 전통적 교회학교가 ‘고착성모형’에 표방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고착성모형은 교사와 학생간의 역할을 구별, 분리한다. 따라서 고착성모형은 제한된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지 못한다. 반면 확산성모형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가르침보다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확산성모형은 건물이 아닌 사람을 찾아간다. 확산성모형 학습 방법으로 교회학교 안에 플립러닝 학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자는 2008년 12월부터 현재(2017년 4월까지) 창원 D교회 청소년부목사로 9년간 청소년들에게 효과적 설교 전달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였다. 그러던 중 2015년 12월 S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마련한 플립러닝 세미나를 통해 플립러닝을 접하게 되었다. 이후 2016년 1월부터 창원 D교회 청소년부 3개월간 교사교육과정을 거쳐 2016년 4월부터 플립러닝을 활용한 청소년설교를 시작하였다.

1) 전통적으로 회중은 설교를 듣는 모든 이를 지칭한다. 본 연구자가 청소년 회중이라고 명하는 이유는 ‘청소년 설교’를 듣는 ‘청소년 회중’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플립러닝은 어떤 학습법인가?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플립드러닝, 역전(逆轉)학습, 역전수업, 거꾸로수업, 혼합형 수업으로 명명한다. 미디어 활용으로 강의 시간 이전, 강의 공간 밖에서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사전 학습하며 강의시간에 다른 학습자와 함께 토론함으로 학습의 결론을 도출하고 강의자의 심화학습으로 마무리된다.

2017년 4월 1일자, 한국학술정보원 검색 결과, 2014년도부터 플립러닝 학위 논문이 검색되었다. 한국학술정보원에 ‘플립드 러닝’ ‘플립러닝’ ‘역진행학습’으로 검색한 결과 국내 석사 논문은 58편, 국내 박사논문은 6편으로 총 64편의 논문이며, 학술지 논문은 110편이 게재되어 있었다. 학위 논문 중에 ‘기독교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총신대학교 황성구(2017),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교회학교 성경교육이 초등학생(5-6학년)들의 학습 동기 및 교육만족도와 영적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석사 논문 단 1편만 있다. 이는 2014년 이후 한국교육계에서는 플립러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반면 기독교교육적 플립러닝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관한 학문적 논의는 희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플립러닝을 기독교교육적 범주로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선행 연구를 통해 발견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청소년설교의 효과적 전달을 고민하는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또 다른 청소년 설교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2016년 4월 7일부터 2017년 4월 17일까지 플립러닝을 활용한 창원 D교회 청소년부 설교 사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플립러닝을 활용한 청소년 설교의 적용 사례 연구로서, 청소년 설교자들이 청소년 설교의 효과적 방안으로 플립러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 방법은 질적연구로서 심층면접과 포커스면접이다. 심층면담 대상자는 D교회에 현재 중고등부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교사 5명이며, 포커스면접은 현재 D교회 중고등부에 2년 이상 출석한 청소년 10명으로 구성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설교

1) 청소년기 이해

청소년기는 2차 성징이 일어나며 조숙과 만숙이 일어난다. 신장과 체중의 증가와 함께 성적 호르몬분비가 왕성해진다. 자신의 신체 변화와 친구들의 신체 변화를 비교하며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기도 한다. 성적 호기심과 욕구로 인해 죄의식과 충동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2차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초기 청소년기는 정서적 독립이 시작되며 부모와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말기 청소년은 경제적 독립 시기이며 진로와 진학 문제로 부모와 관계가 일시적으로 회복되기도 한다(신명희 외, 2013: 292-327).

유화자(2001: 251-254)는 Erick Erikson의 심리 사회 발달이론을 근거로 청소년기를 ‘다른 사람이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타인의 인정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하는 시기로 정리하였다. 또한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작기로 이전에 조작된 모든 이상적 조작들을 현실에서 검증하는 시기라고 정의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가 급변하는 시기이다. 둘째, 정서적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시기이다. 셋째, 그로 인한 불안을 또래문화 안에서 가치 인정으로 풀어가는 시기이다.

넷째, 모든 가설과 이론을 자기기준을 따라 판단하는 시기이다. 다섯째, 종교적 상징을 이해하며 신앙을 통합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영적 발달과 함께 개인적 신앙의 결단과 의심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천정웅의 3명, 2011: 21-27).

2) 청소년설교

설교는 하나님의 자기 선포이다. 설교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며 설교를 듣는 대상은 예배에 참석한 회중이다. 회중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설교에서 올바른 성경해석과 적용은 개혁주의 전통의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다(유해무, 1996: 112-124).

설교는 선포인 동시에 청중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중의 입장을 고려한 설교는 두가지 교육이 필요하다. 먼저, 설교자의 언어 교육이다. 현대 설교의 위기는 쌍방향적 소통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인격적 존중 위에 청중의 삶을 다루어야 한다. 설교자는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청중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설교 언어는 교회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아닌 교회 밖의 일상 언어와 비언어적 도구들을 사용해야 한다.(이숙경, 2013: 7-15). 다음은 청중이 설교의 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이다. 즉,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 설교의 정의와 설교를 들어야하는 이유와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 (박태현, 2016: 81-83).

청소년설교는 청소년 회중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청소년 설교자는 청소년 회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청소년설교는 청소년 발달 수준에 맞는 언어와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이철승, 2010: 189-190)

오늘날 청소년들은 자신을 품어줄 따뜻한 공동체를 원하고 있었다. 그들은 온라인 공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였다(박진규, 2015: 219). 청소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설교 공동체가 필요하였다(박종석, 2002: 261-273). 플립러닝은 적절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들을 설교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플립러닝은 온라인 선행학습과 오프라인 토론 학습을 통해 나와 하나님을 넘어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다.

2. 플립러닝

1) 플립러닝의 개념

플립러닝은 전통적 수업방식을 ‘거꾸로’ 진행하는 수업방식이다. 교수자는 수업 이전에 학습자에게 선행학습을 영상으로 직접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학습자에게 전달한다.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전달받은 학습자는 수업 이전에 필요한 만큼 자신의 수준과 상황에 맞추어 듣고 미리 내용을 학습한다. 수업시간에는 학습자가 사전에 배운 수업정보를 적용하는 활동으로 토의(토의 수업, 문제해결수업, 프로젝트학습 등)에 참여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토의수업 과정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독려하며 토론의 활성화를 마련한다.

햄던(Hamdan)(2013의 3명) 플립러닝은 4가지의 핵심 기둥을 소개하였다. 첫째, 학습공간의 자유이다. 학습 공간을 위한 물리적 환경적 공간의 제한이 없다.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학습자의 선행학습이 가능하다. 둘째, 학습문화의 자유이다. 학습 공간의 자유는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학습을 하는 학습문화의 자유를 가져 왔다. 셋째, 수업의 최적화이다. 학습자는 선행학습을 통해 교수자의 학습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어떤 수업이 이루어질 것인지 파악하게 된다. 이로 인해 수업의 최적화가 수업 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넷째, 플립러닝을 위한 전문 교수자 양성이다. 자칫 플립러닝 교수법을 오해하여 교수자의 역할이 사라지거나 축소 된 것처럼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교수자는 플립러닝의 전 과정을 계획 및 실행하는 전문성을 갖추지 않는다면 플립러닝을 진행하기가 어렵다(Hamdan, Mckninght, Arfstrom, 2013: 1-10).

플립러닝은 전통적 교실 안의 수업을 교실 밖으로의 수업으로 이끌어 내었다. 교실 밖의 수업은 교실 안의 수업을 축소하게 만들지 않았다. 교실 밖의 수업은 교실 안의 수업의 토론수업을 통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만들었다. 교수자의 의도를 파악한 학습자는 교수자의 의도 아래 진행되어지는 다양한 토론활동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동엽, 박주현(2016)은 플립러닝 학습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먼저, 수업 전 사전 학습이다. 교수자는 수업 전 사전학습의 제공 할 동영상 자료 및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15분 이내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는 반복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함이다. 학습 동영상 안에는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동료들과 동료학습으로 토론 할 내용이 포함된다. 학습자는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다. 그 다음, 수업 시간 동료교수학습이다. 교수자는 동영상으로 개별적 선행학습이 되어진 학습자로 하여금 동료교수학습의 장을 열어준다. 마지막, 심화학습이다. 심화학습은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거나 더 깊이 알고 싶은 내용을 교수가 전달한다.

조나단 버그만(Bergmann,J)과 아론 샘즈(Sams, A)은 다음과 같이 플립러닝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플립러닝은 교수자가 정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학습자가 선택한 융통성이 있는 공간에서 학습이 가능한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정보의 핵심이며 원천인 교사 중심의 교육 방식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가 생겼다. 학습자는 좀 더 자신의 학습에 참여하게 되어 자신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학습한다. 그리고 교수자는 자신의 강의 개발과 그 외 강의 계획 시간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강의자는 학습자의 융통성과 자기 주도성을 연구하여 최적화된 동영상과 토론수업, 심화학습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교수자는 영상제작과 온라인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하다 전통적 수업 방식은 자신의 전공분야로도 충분했다. 플립러닝은 교수자의 전공분야 뿐 아니라 영상제작과 활용과 토론 수업 진행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Jonathan Bergmann and Aaron Sams. 2011: 10-20).

2) 플립러닝의 역사

플립러닝은 2014년 4월 부산 D중학교의 거꾸로교실이 KBS에서 방영됨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육부는 거꾸로교실을 시범운영하여 2018년 일반학교에서 과목과목을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로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미래교실네트워크는 1만명의 초중고 교사가 플립러닝 수업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플립러닝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1990년대 말 하버드 교수인 마주르(Eric Mazur)가 컴퓨터 활용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2000년 모린레이지(Maureen Lage), 글렌플랫(Glenn Platt), 마이클 L 트레클리리아(Michael Treglia 2010: 30-43)는 마이애미대학교의 '경제학 입문' 과목을 역진행 수업(flipped teaching, inverted instruction, inverted classroom)을 적용한 사례를 논의한다. 저자들은 역진행 수업에 'flipped teaching', 'differentiated instruction' 등의 용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역진행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수용하여 차별화된 수업을 강조하였다.

2000년 웨슬리 베이커(J. Wesley Baker)은 “역진행 수업: 웹 기반 강좌 관리도구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기” 논문을 통해 역진행 수업을 한다(J. Wesley Baker: 2000). 2000년 가을에 Wisconsin-Madison 대학교는 Computer Science 코스에서 POWER POINT와 비디오 강의를 통합,

제작하여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마이크 테네슨(Mike Tenneson)과 밥 맥글래스(Bob McGlasson)(2006)은 "The Classroom Flip" 의 공동논문에서 역진행수업과 블렌디드학습을 소개한다. 2007년 제리미 스트레이머(Jeremy Strayer)의 박사 논문 "학습 환경에서 역진행수업의 효과: 전통적 교실의 학습 활동과 "역진행수업의 비교"에서 대학교에서의 역진행 수업을 연구하였다. Woodland Park High School의 화학교사인 조나단 버그만(Jonathan Bergmann)(2007)과 아론 샘즈(Aaron Sams)는 중등교육에서의 역진행 수업을 지지한다. 버그만(Bergmann)은 그의 교실에서 역진행 수업의 가장 큰 효과는 사람사이의 접촉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2009년 울산과학기술원에서 "e-Education"와 2013년 한국과학기술원에 도입한 "Education 3.0 프로그램"이 플립러닝의 수업 첫 적용 사례이다(2017년 4월 구글 위키백과 검색).

3. 플립러닝기반 청소년 설교 사례모형: D교회 청소년부 중심

본 연구자는 창원 D 교회에서 2016년 4월부터 2017년 4월 현재까지 1년 넘게 플립러닝을 기반한 청소년 설교를 진행하였다. 1년간 D교회 청소년부에 플립러닝을 적용한 설교수업모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교자는 성경 본문으로 설교문 작성하였다. 이후 설교자는 설교문에 따른 토의 내용 선정한 후 설교문 중심으로 선행학습 동영상(3분미만) 제작을 위한 설교요약문을 작성하였다. 그 다음은, 선행학습 동영상 제작하고 선행학습 동영상을 SNS(쇼셜네트워크커뮤니티)에 업로드(교사밴드, 교사단체 카톡, 페이스북)하였다. 설교자로부터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받은 교사는 분반 학생에게 선행학습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청소년들은 동영상으로 선행학습을 한다.

주중에 이 모든 선행학습이 마무리 되면 주일에는 다음 3가지를 하였다. 첫째, 학습자는 선행학습 동영상을 주일 청소년부 예배 때 한 번 더 시청하였다. 둘째, 학습자는 선행학습 동영상 시청 후 반별 토의수업과 반별 발표를 하였다. 셋째, 이후 설교자의 심화학습(설교)이 이어졌고 학습자는 액션러닝(개인 결단)을 D교회 중고등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기록하게 하였다.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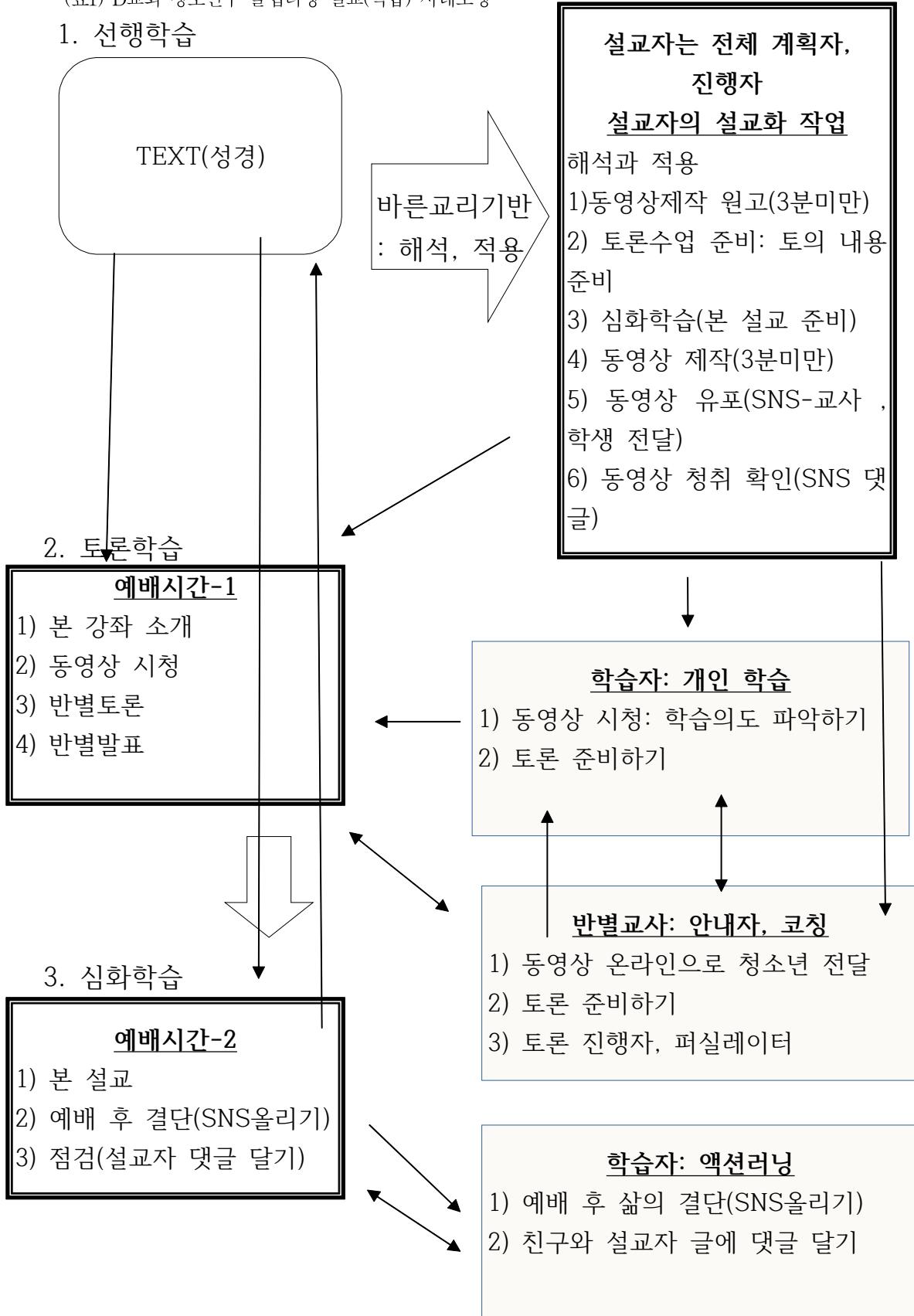
본 연구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D교회에 현재 중고등부에 3년 이상 재직 중이신 교사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하였고, 현재 D교회 중고등부에 2년 이상 출석한 청소년 10명으로 구성하여 포커스면접을 진행하였다.

1) 심층면담

본 연구는 교회학교 청소년부 교사로서 플립러닝이 도입된 설교 교육방식의 심층분석으로 심층면담방식을 사용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해 선발된 교사 조건은 3년 이상 청소년부 교사경력과 현재 중고등부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D교회 성도로 한정했다. 그 이유는 플립러닝 활용 이전과 이후 교사경험을 가진 분을 심층면담하기 위함이었다. 심층면담을 위해 면담 가이드로 구조화 했고 실제 면담에 활용되었다. 아래 표 2번은 면담 가이드이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라포 형성 및 감정 공유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음 표(표2)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교사들의 특징이다.

(표1) D교회 청소년부 플립러닝 설교(학습) 사례모형

1. 선행학습



(표2)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 교사의 특징²⁾

대상	성별	나이	직업	현재 맡고 있는 반 상황	비고
연구참여 교사 1	여	52	공부방교사	중3	
연구참여 교사 2	여	55	간호사	고3	
연구참여 교사 3	여	47	사모	중3	
연구참여 교사 4	여	55	어린이집원장	중2	
연구참여 교사 5	남	44	연구원	중2	

2) 포커스 면담

본 연구의 D교회 청소년 10명은 포커스 면담(Focus Group Interview)으로 하였다. 청소년집단에 대하여 포커스 면담을 진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또래집단활동을 통해 잠재된 역동이나 자신의 생각을 찾아내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일대일 심층면담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청소년은 일대일 심층 면담의 시간적 배려가 어렵다. 이에 반해 초점집단면담은 10명의 청소년은 시간 관리가 용이하며 집단 안에서 들려지는 그들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를 찾아갈 수 있었다.

포커스 면담은 앞에서 언급 바와 같이 5-15명 정도의 소집단을 면담하는 질적연구방법이다. 질적연구의 인류학분야에는 포커스면담이 소집단을 구성하기 용이하지 않음으로 널리 사용하지 않는다. 주로 마케팅 전략이나 작은 공동체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나와 너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을 찾아가는데 사용되었다.

포커스 면담을 위해 선발된 학생은 D교회 2년 이상 출석하며 D교회 청소년부 임원 실행위원으로 구성하였다. 포커스면담을 위해 면담 가이드로 구조화 했고 실제 면담에 활용되었다. 아래 표 4번은 면담 가이드이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라포 형성 및 감정 공유를 위해 노력했다. 표3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학생들의 특징이다.

(표3) 연구참여자 학생의 특징

대상	성별	나이	학교	청소년부 봉사 사역	비고
연구 참여 학생1	여	18	고2	회장	
연구 참여 학생2	남	18	고2	부회장	
연구 참여 학생3	여	18	고2	회계	
연구 참여 학생4	여	18	고2	서기	
연구 참여 학생5	여	18	고2	CCD부부장	
연구 참여 학생6	여	18	고2	예배부부장	
연구 참여 학생7	남	16	중3	행사부차장	
연구 참여 학생8	남	16	중3	예배부차장	
연구 참여 학생9	여	16	중3	CCD차장	
연구 참여 학생10	남	17	고1	영상부 부장	

3) 심층면담 내용분석: 플립러닝 활용한 D교회 청소년 네르티브 탐구 면담가이드

*면담개요

D교회 청소년부는 지난 1년간 플립러닝을 활용한 설교와 교육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부서에 플립러닝을 활용한 설교와 교육에 대한 좀 더 심화적인 연구주제를 찾기 위해 교사와 학생의

2) 본 네르티브 설계 및 연구 방법은 이현철(2013). “한국교회학교교사들의 딜레마에 관한 네르티브탐구”. KRJ.247-279.에서 출처했다.

심층면담 자료를 집중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이 연구 과정은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과정’을 찾아가는데 초점을 두고 설계 및 제작되었다.

***면담시 연구참여자의 주지사향**

첫째, 본 연구는 학습의 흥미와 참여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청소년부에 대한 대안으로 ‘플립러닝’ 교회학교 청소년부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 여부와 어떻게 적용 되어져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연구참여자인 교사와 학생이 어떤 네러티브를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여 차후 플립러닝의 기독교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면담 내용은 연구와 추후 보고서의 작성에만 사용될 것이며 오직 연구자인 ‘문경구’에 의해서만 구성 될 것입니다. 면담 내용을 보고서 혹은 논문 자료에 활용할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고 연구 참여자의 견해, 사생활 노출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본 연구는 교사와 학생 경험의 실체를 알아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견해나 경험을 진술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생각 혹은 느낌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담시 단편적이거나 획일적인 답변보다는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주고받는’ 형식을 통해 연구자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도출 하고자 한다. 때로는 해당 질문과 상관없는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갈 수 있으며, 의미있는 내용을 포착하려는 노력과 인내심이 연구자에게는 필요하였다.

<p>교사 질문지</p> <p>선행학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플립러닝을 위한 동영상에서 상영시간은 적절합니까? 2) 플립러닝을 위한 동영상에서 내용은 적절합니까? 3) 플립러닝을 위한 동영상이 교사에게 전달 시기는 적절합니까? 4) 플립러닝을 위한 동영상은 학생에게 잘 전달했습니까? 5) 플립러닝을 위한 동영상에 대한 학생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6) 플립러닝을 위한 동영상을 통해 학생들이 적절하게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까? 7) 플립러닝을 위한 동영상으로 선행학습에 대해서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p>토의학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플립러닝 동영상 시청 후 반별로 토의하는 시간은 적절합니까? 2) 플립러닝 동영상 시청 후 반별로 토의하는 내용은 적절합니까? 3) 플립러닝 동영상 시청 후 반별로 토의는 잘 이루어집니까? 4) 반별 토의 후 발표하는 과정은 진행이 잘 이루어지십니까? 5) 토의학습에 기타 의견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십시오. <p>심화학습(본 설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플립러닝 학습 이전과 이후를 비교 분석할 때에 설교집중에 차이가 있습니까? 2) 심화학(설교)에 플립러닝 접근으로 교사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3) 심화학습(설교)에 플립러닝 접근으로 교사에게 좋지 못한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4) 심화학습(설교)에서 아쉬운 점이나 부탁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5) 심화학습(설교)에 대해 기타 의견을 말씀 해 주십시오. <p>학생 질문지</p> <p>선행학습</p>

- 1) 플립러닝을 위한 동영상에서 상영시간은 적절합니까?
- 2) 플립러닝을 위한 동영상에서 내용은 적절합니까?
- 3) 플립러닝을 위한 동영상은 선생님께서 잘 전달 받았습니까?
- 4) 플립러닝을 위한 동영상은 선생님께서 전달 받은 시점이 적절했습니까?
- 5) 플립러닝을 위한 동영상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6) 플립러닝을 위한 동영상을 통해 나의 선행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7) 플립러닝을 위한 동영상으로 선행학습에 대해 기타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토의학습

- 1) 플립러닝 동영상 시청 후 반별로 토의하는 시간은 적절합니까?
- 2) 플립러닝 동영상 시청 후 반별로 토의하는 내용은 적절합니까?
- 3) 플립러닝 동영상 시청 후 반별로 토의는 잘 이루어집니까?
- 4) 반별 토의 후 발표하는 과정은 잘 진행이 되는가요?
- 5) 토의학습에 대해 기타 의견을 말 해 주십시오.

심화학습(본 설교)

- 1) 플립러닝 학습 이전과 이후를 비교 분석할 때에 설교집중에 차이가 있습니까?
- 2) 심화학습(설교)에 플립러닝 접근으로 나에게 좋은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 3) 심화학습(설교)에 플립러닝 접근으로 나에게 좋지 못한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 4) 심화학습(설교)에서 아쉬운 점이나 부탁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 5) 심화학습(설교)에 대해 기타 의견을 말 해 주십시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면담 과정을 녹음하였고 녹취하였다. 녹취를 인쇄하여 녹취된 자료를 근간으로 주요 개념과 영역간의 구조를 코딩하였다. 코딩된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코딩 항목간의 빈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코딩된 자료와 함께 연구절차를 살펴 연구 수행의 모든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5) 본 연구의 타당도 증진 전략

본 연구의 타당도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운다. 연구자 참여자들과 질적 연구 전문가들의 연구과정에 대한 멤버체크(member check) 과정을 수행하였다. ‘플립러닝의 활용에 의한 청소년 기독교교육적 접근’ 관련하여 도출된 여러 결과들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과 질적 연구자들이 살펴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 연구의 다당성을 마련하였다. 연구 참여자와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연구내용 결과를 보내었다. 연구 참여자는 그 결과를 보고 난 후 자신들의 생각을 다시 보내어 수정 보완했다. 질적 연구 전문가인 K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질적연구 전문 교수님 두 분에게 위 논문 진행 과정을 공개하며 자문을 구하였다. 둘째, 타당도 증진을 위한 연구 참여자에 대한 분석과정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인 ‘플립러닝의 활용에 의한 청소년설교’를 이해하며 연구할 수 있는 3년 이상 청소년부서를 사역하는 교사와 2년 이상 출석하며 청소년부 임원실행위원으로 봉사하는 청소년으로 연구 참여자를 제한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는 플립러닝의 활용에 의한 청소년설교 사례 연구로 플립러닝 방식으로 1년 이상 청소년부 예배시간에 시행 해 온 경남 창원시 소재 D교회 청소년부 교사와 학생의 표집 면담이다.

1) “이게 선행학습이었나요?” 플립러닝 이해부족

어떤 학습방법을 시행하기 앞서 먼저 그 학습방법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어떤 연구 참여자는 플립러닝의 학습 구조인 선행학습-토의학습-심화학습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진행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연구참여자는 선행학습을 해야 할 이유도 모르고 있었다. 한 청소년 연구참여자의 말이다.

연구참여자4(학생, 18): 저는 이게 선행학습인지 몰랐어요. 플립러닝에 선행학습이라는 것을 아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플립러닝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학생연구참여자4는 지난 1년 넘게 플립러닝 방식으로 설교가 진행됐지만 아직까지 플립러닝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하였다.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여겼던 연구자의 잘못된 판단을 알려 주었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말이다.

연구참여자3(교사, 47): 우리 애들이 중3이라 그런지, 왜 동영상을 선생님이 주시는지, 목사님이 왜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연구참여자6(학생, 18):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설교하기 전에 플립러닝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애들에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계속 들으면 애들이 이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교사 연구참여자3은 중3학생들은 구체적으로 동영상 시청이 학습상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있음을 연구자에게 알려주었다. 학생 연구참여자 6은 한 달에 1번이라도 반복해서 짧게라도 플립러닝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하였다. 다음 연구참여자의 말을 통해 학습자가 플립러닝을 이해할 때에 주어지는 학습동기가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10(학생, 17): 왜 이 동영상을 보는지 한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오늘에 목사님을 통해 처음으로(면담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놀랍네요. 그런 것이라는 것을.....이제는 동영상을 꼭 봐야겠네요.

연구참여자 10의 말은 플립러닝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학습의 동기에 필요한지를 보여주었다. 플립러닝 학습의 장점은 선행학습이다. 자기주도적 선행학습은 학습자의 플립러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있을 때에 가능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D교회 청소년부는 학습자가 충분히 공감하고 지지할 만큼 플립러닝에 대한 사전학습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를 위해 설교자는 설교시간에 종종 플립러닝의 의미와 학습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애들과 더 친해지기 정말 힘듭니다.” 학습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교사 역량개발

중전 교사의 패러다임은 교사 중심의 학습전달 구조였다. 학습자 중심의 플립러닝에서 교사 역할 기존 교사와 다르다. 이는 전통적 분반교사와 플립러닝방식 분반교사의 역할은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참여자1(교사, 52):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장소가 문제입니다(예배당 안에 장의자로 앉아 있어서). 친밀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시간도 짧고 시간을 더 준다고 말을 잘 할 것은 아니지만, 토의 시간에 어떻게 토의해야 할지 교사로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D교회 청소년부의 예배 공간은 교회 본당으로 토론학습을 진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장의자라는 특성상 마주보기가 쉽지 않고 음성 전달도 어려웠다. 공간적인 어려움과 함께 시간적 배려도 필요했다. 교사 연구참여자1은 이 모든 환경과 함께 토의학습의 진행자로서 교사 훈련이 필요함을 말하였다. 플립러닝의 활용한 설교에서 공간의 부적절함 만큼이나 토의 기술의 역량강화는 교사에게 필수적임을 알려주었다.

연구자 참여자(학생, 18): 애들이 폰도 만지고 가만히 있고, 애들끼리는 안 친하고 그래서 애들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선생님도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진짜 아무도 말 못해요... 선생님이 의견을 내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예, 아니요 식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저는 학생들이 답을 하면, 왜 그런 답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물어보면 좋겠어요(선생님이).

학생 연구 참여자4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토의 학습에 집중하지 않는지를 토로하였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단답형 질문형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열린 사고와 토의를 위한 질문들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플립러닝 분반교사는 학습의 안내자이며 토의학습과 회의 진행자 역할이다. 이에 상담자와 퍼실레이터로서 역량개발이 필요하였다. 이전 교사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게 하는 것이 주안점이었다. 그러나 플립러닝 교사 역할은 분반 학생의 생각을 정리하여 토론의 장으로 유도하여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

최근 전통적 교사 중심의 교수법에서 학습자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전환이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학습자의 의견 수렴, 토의 진행,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식의 역량강화가 필요하였다(함영주,2016:416-418).

3) '선행학습(플립러닝) 동영상 업로드, 요일이 정해지면 좋겠어요.'

선행학습 동영상 제작은 설교문 작성, 설교문요약, 토의 문제선정 등의 사전작업이 필요하였다. 사전작업이 끝나면 선행학습 동영상 작업이 가능하였다. 동영상작업의 관건은 사전작업 시간이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있었다. 사전작업시간에 따라 선행학습 동영상 제작 및 유포시간이 달라졌다.

연구참여자3(교사, 47): 동영상이 제게 오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언젠는 금요일 밤에 오기도 하고, 언젠는 수요일 저녁에 오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토요일에도 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4(교사, 55): 요즘은 카톡이니 밴드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상마저 언제 올지 모르니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요일을 정해 주시고, 시간도 가능하면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사 연구참여자연구4는 자신은 여러 SNS에 가입했기에 목사님의 영상만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하였다. 연구자가 본 연구를 하기 전에는 연구참여자들이 SNS홍수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못하였다.

연구참여자1(교사, 52): 저는 목요일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목요일 정도 보내주셔야 제가 보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아이들에게 보내주고 토요일에는 아이들이 봤는지 안 받는지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 연구참여자1은 선행학습 동영상에 교사에게 주어져야만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 청소년들의 영상시청 확인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은 동일한 요일이나 동일한 시간에 선행학습 동영상 업로드를 원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정한 시간에 선행학습 동영상이 온라인 업로드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위해 선행학습 동영상 제작 중에 불필요한 작업과 시간 낭비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봄으로 정한 요일에 동영상을 제작 및 업로드가 수월하게 되었다.

4) “토의학습 질문과 설교(심화학습)의 연결고리가 제일 중요해요.”

플립러닝은 장점은 학습자간의 동료학습이 일어난다. 동료학습을 통해 학습자간의 협업과 교수가 일어남으로 학습에 극대화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 동료학습의 장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설교(심화학습)과 연결하는 토의학습 질문이 중요하였다. 설교를 통해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청소년들에게 토의 질문은 설교를 이어주는 서론의 역할이 될 수 있었다. 장정복(1981: 156-160)은 설교의 서론과 결론이 설교의 완성임을 강조하면서 서론이 본론과 이어지도록 설교자의 노력을 요구하였다.

연구참여자1(교사, 44): 목사님 설교랑, 토의학습 질문이랑 연결이 잘 되는 날에는 설교가 쑥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날에는 토의학습 왜 했나 싶어요. 설교랑, 토의학습이랑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요?

연구참여자2(교사, 55): 저는 한번씩 아 그래서 목사님이 저 질문으로 토의를 하라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설교랑 토의 문제가 연결 될 때마다 설교가 잘 들리고, 반 아이들이 설교가 더 재미있다고 말해요.

연구참여자2(학생, 18): 토의라는 것 하고 나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가끔은 아 우리고 토의하라고 한 이유가 저거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목사님이 우리에게 토의하라고 한 이유.

연구참여자는 토의문제와 설교내용이 일치할 때에 설교의 집중이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다. 교사들은 반 아이들과 토의학습을 한 후에 그 내용과 설교가 일치할 때에 아이들도 재미있어하고 본인들도 설교가 잘 들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었다. 플립러닝은 설교에 대한 흥미를 학습자간의 토론학습을 통해 만들어간다. 전통적인 설교의 도입을 설교자가 이끌어갔다. 플립러닝방식은 학습자의 토론이 설교의 도입이 됨으로 설교의 시작을 학습자가 만들어가게 되었다. 학습자가 설교의 서론을 이끌어감으로 설교의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었다.

5) ‘나와 너를 알아가는 시간’

신앙 교육은 구조만큼이나 삶을 나누는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였다(박신웅, 2013: 233-250). 건강한 공동체 안에는 삶의 개방이 필요하였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부서 안에 삶의 개방을 이루어가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성세대와 단절과 이질적 청소년 또래 문화에 대한 배타성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침묵을 선택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4(교사, 55): 그 전에는 아이들이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확인이 안되요. 그런데 질문에 답을 하고 서로 말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신앙을 가졌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가끔은 아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연구참여자5(교사, 44): 중 2라서 말을 잘 안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가끔 아이들이 툭툭 던지는 한마디가, 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맘이 들어 참 좋았어요. 아이들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연구참여자1(학생, 18): 옆 친구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어요. 참 좋아요. 나와 같은 생각 때로는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해주는 친구, 그리고 제 생각을 말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아요.

연구참여자3(학생, 18):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신앙심이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플립러닝은 교회 학교에서 청소년 대화에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였다. 주어진 토론시간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삶을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교사 연구참여자 5는 이전과 달리 분반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6) “전보다는 설교시간이 덜 지루해요.”

청소년에게 기독교에 대한 인식만큼이나 설교에 대한 인식은 기독교교육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과정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어떤 이는 설교에 대한 이미지가 지루한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플립러닝을 활용한 청소년설교의 변화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설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3(교사, 47): 설교 내용을 미리 한번 보고 오는 것이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설교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1(교사, 52): 새로운 것 하니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무엇인지 잘 몰라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10(학생, 17): 전에는 (설교를) 잘 안 들었는데, 요즘은 잘 듣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6(학생, 18): 영상도 보고 토론하고 설교도 듣고 그러다 보니 설교를 더 잘 알 것 같아요. 신앙심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플립러닝 방식의 설교는 청소년들에게 들려지는 설교, 참여하는 설교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는 기독교교육학적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청소년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만큼이나 어떻게 전할 것인가가 청소년설교를 들리게 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IV. 나가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롬 10:17)’이라고 하였다. 신앙의 성숙은 설교를 들음으로 이루어져간다. 설교자는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이다. 설교자는 회중이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설교자는 청중에 따라 설교 방식을 달리 할 수도 있다. 청소년설교는 청소년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청소년설교자는 자신이 전한 설교가 청소년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강의자 중심의 일방향적 강의를 선호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은 쌍방향적이며 협업적인 학습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설교자는 학습자 중심의 설교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청소년에게 들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1년 간 창원 D교회 청소년들에게 플립러닝을 기반한 청소년설교를 시행하였다. 그 사례를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플립러닝 학습에 대한 충분한 사전이해가 필요하였다. 새로운 학습법의 도입은 그 학습법에 대한 이해에서 가능하였다. 플립러닝 학습은 선행학습과 토의학습이 강점이었다. 플립러닝을 이해할 때에 교사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학습 친화적 환경 조성은 플립러닝 학습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였다.

둘째, 학습자 중심의 교수 활용에 대한 교사역량 강화이었다.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은 학습자가 학습을 주도하는 학습법이다.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은 교사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교수자 중심 학습법 그 이상으로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주도를 위한 세심하고 능동적인 배려와 역량이 필요하였다. 학습자 전체 집단을 이해함은 물론 개개인의 특성과 성향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하였다. 교사는 학습 집단이 역동적으로 상호 토론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하였다.

셋째, 좀 더 계획적인 영상제작과 온라인 업로드를 위한 확인절차가 있어야 한다. 플립러닝은 영상제작과 온라인 업드로 작업이 필수적이었다. 영상제작이 정한 요일에 온라인 업로드하는 것은 학습자와 학습 약속이었다. 때로는 교사와 학생은 플립러닝 영상이 약속한 날짜에 올라오지 않음으로 학습 흥미를 상실하거나 학습 기회를 놓치기도 하였다. 약속한 요일에 학습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은 효과적인 플립러닝 청소년 설교의 중요한 요소이었다.

넷째, 선행학습-토의학습-심화학습의 연결고리인 토의문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였다. 토의문제의 핵심은 ‘토의 진행방식’만큼이나 ‘토의 질문’도 중요하였다. 토의 질문은 플립러닝을 활용한 청소년설교의 서론이 되었다. 그리고 핵심 주제에 이르게 하는 다리 역할이 되었다. 청소년들은 토의 문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설교 핵심 주제에 이르게 되었다.

다섯째, 사제간에 진솔한 관계 형성의 가능성을 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사와 학생간의 선한 관계는 청소년의 신앙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플립러닝의 토의학습은 교사와 학생간에 서로의 생각을 나누게 됨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게 하였다. 기존 공과공부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내어야 함으로 심적인 부담도 있었다. 뿐 만 아니라 학습 효과나 교사, 학생간의 관계 형성도 쉽지 않았다. 플립러닝은 확산성 교육모델로 학습 시간이 제한받지 않게 되었다. 학습되어진 것들을 나눔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여섯째, 일방적 설교자 중심의 설교가 아닌 쌍방향적 참여자 중심의 설교 가능성이었다. 전통적인 일방향성 설교자 중심의 설교는 쌍방향성 참여자 중심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플립러닝을 활용한 청소년 설교가 청소년들로 들려지는 설교와 참여하는 설교로 이끌어내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이에 후속연구로 본 연구를 기반으로 플립러닝을 활용한 청소년 설교의 실행연구를 제안한다. 청소년

교육에는 설교 뿐 아니라 제자훈련을 포함 여러 영역이 있다. 다양한 교회학교 영역에서 플립러닝 활용의 실천과 연구를 기대 해 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신명희 외(2013). 『발달심리학. 학지사』. 서울: 학지사.
- 박진규(2015). 『청소년문화 3판』. 서울: 학지사.
- 천정웅 외(2011). 『차세대 청소년학총론』. 경기도: 양서원.
- J. Wesley Baker(2000). *The "Classroom Flip": Using Web Course Management Tools to Become the Guide by the Side Selected*. Papers from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llege Teaching and Learning 2000. :Cedarville University.
- Hamdan, Mcknighnt, Arfstrom(2013). *WHITE PAPER FLIPPED LEARNING: FLIPPED LEARNING NETWORK*.
- Jonathan Bergmann and Aaron Sams(2011). *Flip YOUR Classroom Reach Every Student in Every Class Every Day*. : First Edition.
- 김효숙(2016). “다음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학습 환경 설계.” 『선교와 신학』. 39. 83-117.
- 박종석(2002).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체제로서의 설교: 청소년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5. 261-301.
- 유화자(2001). “청소년 사역에 관한 소고.” 『신학정론』. 19(1). 241-275.
- 유해무(1996). “삼위 하나님을 아는 신학.” 『신앙과 학문』 1(2). 35-44.
- 이동협, 박주현(2016). “플립드 러닝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방안연구.” 『디지털융합복합연구』. 1-9.
- 이숙경(2013). “현대 설교의 과제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고찰.” 『성경과 신학』. 67. 1-29.
- 이철승(2010).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본 청소년설교 실제.” 『복음과 실천신학』. 22권. 가을호. 189-215.
- 이현철(2013). “한국교회학교교사들의 딜레마에 관한 네러티브탐구.” 『한국개혁신학』. 247-279.
- 박태현(2016). “청중의 설교학: 효과적 설교 청취의 기술-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51 권 0호. 57-87.
- 박신웅(2013). “기독교 성인교육에 있어 부정형적 교육이 주는 시사점.” 『한국기독교논총』 88 (1). 233-254.
- 조성남, 박선웅(2017). “청소년 하위 문화와 정체성.” 『사회과학연구논총』. 7. 122-128.
- 함영주(2016). “기독교교육방법으로서의 액션러닝에 대한 이해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실천신학회』. 415-441.
- _____ (2016). “기독교교육방법으로서의 액션러닝에 대한 이해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실천신학회』 (2016). 415-441.
- <http://www.sciencetimes.co.kr/?news=거꾸로-교실-교사-1만명-넘었다>

A Case Study of Youth Sermon Using Flip Learning: Focusing on D Church

Moon Kyoung gu (Kos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youth group ministers use the method of 'flip-learning' in order to help the listeners understand a more effective method of church preaching. For this study, the researcher analyzed many sermon cases with 'flip-learning'. The youth group ministry of 'D' Church in Changwon City, Gyeongnam Province was conducting the preaching with flip-learning from April 2016 through April 2017. D church's flip-learning preaching for its youth group has the following procedures: First, the preacher prepares a User Created Contents(UCC) to summarize the sermon and the topics discussed at each Sunday's sermon, which youth could watch through SNS before joining Sunday services. At Sunday school, the youth discuss topics which were given at UCC. In the service, the preacher delivers a sermon on a topic that the youth already watched and discussed. The final step is 'Action Learning'. In this step, whoever wants to share their commitment to faith can do so using D church's youth group Facebook. In this research, the researcher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5 Sunday school teachers and a focus group with 10 adolescents. This qualitative research deriv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agreement and cooperation between church staff and youth that D church would use the flip-learning method. Second, the teachers' understanding of the flip learning method in order to facilitate the students' learning. Third, the learner requested to upload UCC on designated day. Fourth, the learner demanded the relevance between the topics of discussion and sermon. Fifth, these procedures evidently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s and the students in faith. Sixth, the participants of flip learning show improvement in focusing on the preaching. **Based on this research, flip learning has proven to be executed well, and is critical for application towards various studies during adolescent education, specifically for disciple-making**

Keywords: the case study for Youth Group Sermon, flip learning, adolescent education, in-depth interview, focus group interview

Key words: Youth sermon case study, Flip learning, Christian education, In-depth interview, Focus group interview.